

보물상자에 담긴 고대 이집트의 비밀

영국 러닝프레스사의 《보물상자》

장익순

출판기획가

인류가 기억의 축적과 전달의 매체로서 책이라는 혁명적인 수단을 개발한 이래, 책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가는 교육 과정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아 왔다. 파피루스나 점토, 양피지, 사원의 기둥이나 바위, 죽간(竹簡)을 이용하여 그리 많지 않던 지식을 새겨넣던 초기의 책은 종이의 발명과 인쇄술의 혁신에 힘입어, 폭발적으로 증대하는 인류 문명의 내용을 충실히 담아내는 그릇으로 진화했다. 이제 컴퓨터 시대가 만들어낸 디스켓이나 CD-ROM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활자 병정들의 단선적인 행진과 전투로 이루어지는 책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까지하다.

그러나 이제 소개되는 보물상자를 보는 순간, 이같은 의문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만다. 정교하게 제작된 이 작품은 책이라는 제한된 형식의 운명성을 주사위처럼 가지고 놀고 있다. 책이라는 교육수단을 재미있게 입체화시키려는 상상력이 빛어낸 걸작이라 할 만하다.

이 보물상자는 평면인 종이에 활자와 도안을 인쇄하여 머릿속에서 무제한의 상상력을 불러일으켰던 종이책의 방식에 놀이의 창의적인 실천력을 철저히 결합하고 있어서, 읽는이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준다. CD-ROM 같은, 이른바 하이퍼텍스트로는 도저히 체험할 수 없는 감각적 상상력과 실용적인 교육 효용성을 보여준다.

고고학적 지식 바탕한 놀이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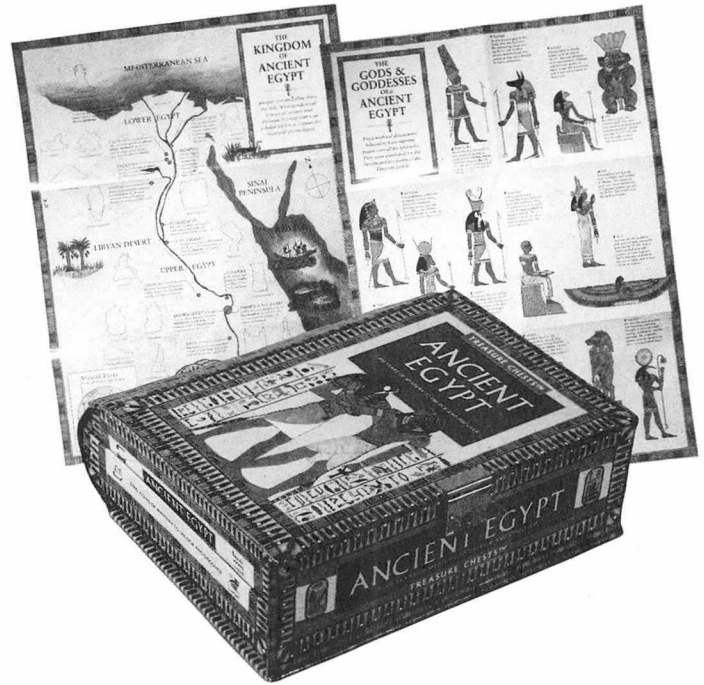
재미있게 고안된 이 교육용품 상자는 뜯어볼수록 말 그대로 보물상자임을 실감케 한다. 가로 18cm×세로 21.3cm×높이 7.3cm인, 두꺼운 책 두권을 겹쳐 놓은 크기의 이 상자는, 그 작은 공간에 고대 이집트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압축해 놓고 있다. 화려한 고대 이집트 그림으로 상자 안팎을 장식하고 있고, 자물쇠까지 장치하고 있어서, 상상력이 풍부한 어린이들은 마치 채색된 지하 왕릉으로 들어가 투탄카멘 파라오의 황금 관을 여는 듯한 착각을 가질 법도

하다.

고대 이집트 고유의 문양과 그림을 세밀히 복원하고 정밀하게 인쇄하여 단단한 골판지에 압착했기 때문에 우선 상자가 튼튼하고 아름답다. 열쇠로 자물쇠를 열고 상자

를 열면 반쪽으로 갈라지며 부장품들이 한 눈에 진열된다.

왼쪽 방에는 고대 이집트의 역사와 문물을 흥미롭게 소개한 다이제스트 판 핸드북이 끈에 묶여 있고, 오른쪽 방에는 고대 이



비밀 격실 안에 있는 부장품들

- ▲중근 상형문자 해독기, 판을 돌리면 해당 상형문자를 읽는 알파벳이 나온다.
- ▲고대 이집트 신들의 계보도 (앞면),
- ▲고대 이집트의 왕국 지도. 당시 왕국의 전체 지도를 그림으로 보여준다.
-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와 여왕들(뒷면),
- 시대별로 유명했던 파라오와 여왕들을 설명한다.
- ▲고대 이집트왕국 여행 스티커,
- 고대 이집트왕국 지도를 더듬어 가며 그 지역에 유명한 유적 스티커를 붙인다.
- ▲이집트 벽화의 비밀(격자 모사도).
- ▲게임판 1
- 두 사람이 파라오가 되어 사후세계에서 영혼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신들과 여행하는 게임.

왼쪽 방에 놓인 부장품들

- ▲고대 이집트 해설서,
- 32쪽의 고대 이집트 역사 및 문물 안내서. 대영박물관의 전문가가 집필한 이 핸드북은 주제별 전문 해설과 정교한 올 컬러 그림을 곁들이고 있다.
- ▲게임판 2
- 고대 이집트에서 마법의 보석으로 애용됐던 갑충석을 이용한 게임.

오른쪽 방에 놓인 부장품들

- ▲고무도장 세트
- 비밀 격실에서 찾은 상형문자 해독기를 이용하여 친구에게 줄 메시지를 상형문자들로 조립한 다음 핀셋으로 조립 짝개에 박아넣고 인주를 문혀 파피루스에 찍어낸다.
- ▲각종 구슬과 실
- 실제 이집트에서 가져온 목걸이용 구슬과 실이다.
- ▲샤브티
- 돌로 깎아 만든
- 소형 장식 미이라

문란한 공직윤리의 문화

존 누난의 《뇌물의 역사》를 읽고

안경환 · 서울대 법학과 교수

집트 당시에 쓰였던 갖가지 물품들이 부장품으로 빼곡이 들어차 있다. 더구나 왼쪽 방 밑에는 파라오의 비밀방처럼 비밀 격실이 장치되어 있다.

이 비밀 격실을 서랍처럼 열면 고대 이집트로 여행할 수 있는 지도와 역사 도표, 여행하면서 마치 그때 이집트인처럼 상상하며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게임 용품들이 가득 들어 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만들어지지 않은 것들이다. 풍부하고도 정확한 고고학적 지식을 배경으로 철저한 교육학적 효과를 배려하여 만든 최고급 놀이기구인 셈이다.

이 작은 상자 안에 3,000년 전의 고대 이집트 문화—그들의 일상 생활, 풍습, 종교적 믿음체계, 예술의식, 나아가 독자적인 그들의 과학까지 살아숨쉬고 있다. 보물상자를 가지고 놀다 보면, 고대 이집트의 신기하고도 낯선 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역사적인 인식체함을 통해 우리가 사는 현대문화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

우리의 경우에도 적용하길

청소년용으로 만든 것이긴 하되, 어른이 어린이들과 함께 놀면서 고대 이집트의 문화와 역사를 가르치고 즐기는 데에도 아주 적합한 작품이다. 영국의 러닝 프레스(RUNNING PRESS)에서 출판했는데, 워낙 잔손이 많이 가는 것이라서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빌려 제작했다.

몇달 동안 책상 모서리에 두고 만지작거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훌륭한 교육용 상자를 출판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일선 학교 선생님들과 각 분야 전문 학자들과 협의하여 한창 창의력과 상상력이 자라나는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는 작품들을 선물하면 오죽 행복할까 하는 기대와 아쉬움에 잠겼다.

당장 역사 부문만 하더라도, 고대 고구려인들의 찬란했던 역사와 문물을 고대 고분 벽화들로 꾸며서 이같은 보물놀이 상자로 만들면, 굳이 달달 외고 쓰지 않아도 그 자랑스런 자부심과 역사체험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

“공직과 성은 무상으로 제공해야 명예로운 것이다.”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보아도 한 사회를 도덕적으로 지탱하는 두 개의 큰 기둥은 성윤리와 공직윤리였다. 그 기둥 중에 하나가 세월과 문명의 침윤으로 마모(磨耗)되었다. 성윤리가 변질한 만큼 사람들은 더욱더 공직윤리에 집착하게 된다. 나머지 하나 버팀목이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강화된 공직윤리의 논의는 문란해진 성 윤리의 대타”이다.

미국의 연방법원 판사 존 누난은 일반국민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저명인사이다. 그의 저술들은 법조계를 넘어서 많은 독자를 끌고 있다. 재미와 함께 높은 교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뇌물의 역사》도 이러한 유형의 저술에 속한다. ‘도덕적 이상의 지성사’라는 부제가 말해주듯이 이 책은 뇌물이라는 풍속의 시원(始原)과 역사적 발전과정을 인류 지성사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있다. 미국의 유수한 법과대학 교재로 사용되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영국과 미국의 문화적 환경에서 뇌물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함의를

추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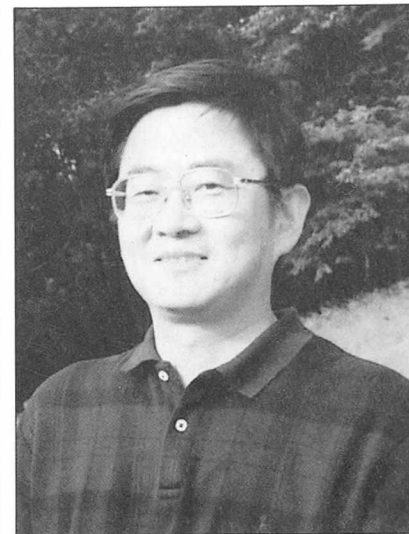
원저에는 영미문화의 뿌리인 고대와 중세 부분도 포함되었지만 번역서에는 담지 못했다. 어원으로 볼 때 ‘부패시킨다(corrupt)’라는 단어는 동시에 ‘정조를 해친다’는 의미이다. 미국 헌법도 반역과 수뢰(收賂)를 양대 범죄로 규정한다. 그런데 뇌물과 선물은 구분이 모호하다. 셰익스피어, 프란시스 베이컨, 동인도회사의 헤이스팅스 총독, 제퍼슨과 존슨 대통령, 모두가 뇌물과 선물시비를 겪은 인물들이다.

뇌물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악(惡)임에도 불구하고 선물이라는 포장을 달면 사회의 ‘윤회유’가 된다는 것이 일반의 소신이다. ‘떡값’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법률가, 신학자, 정신분석학자, 사회과학자, 그리고 심지어는 소설가들조차도 부패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노예제의 폐지라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도 뇌물로 표를 산 링컨의 부패정치에 힘입은 것이라는 주장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한국에서 영업하는 대가로 걸프사가 공화당의 선거자금으로 1966년에 백만 달러,



안경환 교수.

1970년에 또다시 3백만 달러를 바친 사례는 미국기업의 관점에서는 기름치는 일이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관료계의 경험부족이라는 지적도 재미있다.

이 책을 읽는 재미는 더할 바 없고, 각종 역사와 문화의 에피소드를 즐기는 부수입도 크다. 간혹 전문적인 법률용어의 어색한 번역이 (특히 영국법의 경우) 전공학도의 신경을 건드리지만 일반독자의 눈흐름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다. 여하튼 성과 뇌물을 동일한 차원에 두고 사회현상을 조망하는 저자의 분석들은 공감과 경탄을 얻기에 충분하다.

심심풀이로 저자의 분석들을 한국의 현대사에 조명해보자. 성에 문란했던 대통령은 술자리에서 죽었고, 검은 돈 챙긴 두 사람은 치욕스런 영어의 몸인데, 성도 돈도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현직 대통령은 어떻게 공직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미리 궁금하다. ❖

이순영 옮김/한세/A5신/506면/9000원

